

2019년 6월 11일 제15호

연구위원	안혜영	***h5@hanafn.com
연구위원	이오유	**in.oh@hanafn.com
연구위원	이완	***wanlee@hanafn.com
연구위원	왕규완	***wang@hanafn.com
수석연구위원	김동한	***dhk@hanafn.com
수석연구위원	김민지	**@hanafn.com
수석연구위원	김지향	***acool@hanafn.com

HF월간 산업 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산업별 주요 이슈

화학 화학물질 안전 규제 강화가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안혜영

- 최근 정부가 화학물질 생산·수입, 취급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자본력, 전문인력, 안전점검, 설비투자 확대가 필요하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 향후 정부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규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영업 중단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위험이 높은 영세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리스크관리가 필요

디스플레이 LCD 시장을 지탱하는 LG, 삼성의 ASP 초격차 전략 이주완

- LCD 시장에서 중국의 출하량은 이미 한국을 추월했고 그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나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여전히 한국이 중국과 대만을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확보했기 때문. LG의 ASP는 경쟁사 대비 대형은 1.5~2.0배, 중소형은 13~20배를 기록해 여전히 세계 1위의 경쟁력 보유

자동차 국내 중고 화물차 시장의 동향과 전망 김동한

- 국내 중고 화물차 시장은 2006~2011년 동안 고성장을 하였으나, 2012년부터 수요 변화가 거의 없음. 다만, 최근 법/제도 등이 정비되는 등 레몬마켓에서 피치마켓으로 인식의 변화가 감지
- 자영업 및 건설경기 침체로 당분간 국내 중고 화물차 시장의 수요 정체가 계속되겠지만, 법/제도가 정비되고, 매매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온라인 및 대형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

조선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내용과 시사점 마지황

- 정부는 작년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최근 발표하였으며, 조선산업 인력양성, 금융애로 해소 및 친환경화 지원이 이번 대책의 핵심
- 이러한 추가 대책으로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의 친환경선박 관련 역량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수주를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발전 국내 풍력발전 최근 동향 및 이슈 오유진

-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풍력발전은 입지갈등, 환경훼손, 인허가 등 사업여건 개선이 미미하여 연간 200MW 내외의 더딘 성장세를 지속 중
- 발전사들은 입지제약 타개를 위해 육상보다 해상풍력을 확대하고자 하며, 국내는 해상풍력 설치 경험이 미미하여 사업위험이 높은 편으로 심사시 개발 및 운영단계의 각종 리스크에 주의

유통**신생 중소 면세점 부진에도 하반기 시내면세점 추가 예정****김문태**

- 전체 면세점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생 중소면세점 중 하나인 한화 그룹 면세점이 중국 소비자 위축 및 수수료 경쟁 심화 등으로 조기 철수 결정
-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신규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중소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 증가 및 매출 성장 제한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부동산**(주)직방 국내 PropTech 최초 유니콘 기업으로 기대****황규완**

- (주)직방 3년 연속 흑자 시연에 힘입어 Series D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면서 국내 PropTech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이 증대와 유사 기업 발굴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단, PropTech 기업의 수익구조가 대부분 중개 등록비로 구성되어 경기변동에 취약하며 부가가치의 제공도 제한적인 관계로 투자 및 여신 취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산업별 경기 트렌드

경기사이클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C10-11. 음식료품	음식료						
C13. 섬유	섬유		●				
C14. 의류	의류		●				
C19. 정유	정유				●		
C20-21. 화학제품	석유화학						●
	제약				●		
C22. 고무,플라스틱	고무,플라스틱	●					
C23. 비금속광물	시멘트						
C24. 1차 금속	철강						
	비철금속						
C26.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통신장비(휴대폰)						
C29. 기계	일반기계			●			
C30. 자동차	자동차		●				
C31. 기타 운송장비	조선		●				
D.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		
F. 건설	건설						●
G. 종합유통	무점포(온라인)			●			
	종합소매업(대형)			●			
	편의점		●				
H. 숙박 및 음식점	숙박(N/A)						
I. 운수	해상운송		●				
	항공운송				●		
J. 통신,미디어	통신서비스			●			
	SW/SI		●				
L.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		●				

산업 이슈

석유화학 : 화학물질 안전 규제 강화가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디스플레이 : LCD 시장을 지탱하는 LG, 삼성의 ASP 초격차 전략

자동차 : 국내 중고 화물차 시장의 동향과 전망

조선 :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내용과 시사점

발전 : 국내 풍력발전 최근 동향 및 이슈

종합유통 : 신생 중소 면세점 부진에도 하반기 시내면세점 추가 예정

부동산 및 임대 : (주)직방 국내 PropTech 최초 유니콘 기업으로 기대

C20. 석유화학 : 화학물질 안전 규제 강화가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Summary** : 최근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는 화평법, 화관법, 산관법 등의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생산 및 수입과 취급 시설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대폭 강화된 정부의 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본력, 전담 인력 등이 필요하며, 안전 점검을 위한 가동 중단 및 설비투자 또한 단행해야 하므로 관련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가중

※ **Comment** : 금융그룹은 우량 기업을 선별하여 정부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영업 중단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리스크관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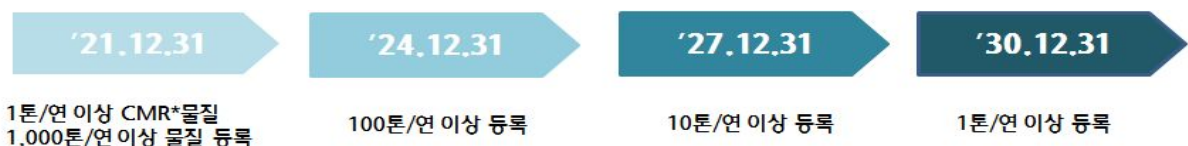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으로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업체들은 신고가 필요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대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이 개정되어(2018년 3월)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
- 이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은 6월 30일 까지 환경부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들에 대해 유해성과 제조 수입량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 등록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
 -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등록을 해야 하며 0.1톤 미만의 경우에는 환경부에 신고해야 함
 - 6월 초 기준, 3,058개 업체에서 9,768종 물질을 신고, 이 중 중소기업은 2,651개소에서 7,131종을 신고, 대기업은 407개소에서 3,246종을 신고
- 환경부는 미신고업체에 대해 제조, 수입, 사용, 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물질을 사용하려면 유예기간 없이 등록해야 하며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그 외에도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15.1)으로 해당 시설은 5년 유예기간 후 2020년부터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

그림1 | 기존 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 CMR(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toxic)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자료 : 환경부

- 주요 내용으로는 제조 수입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 보관, 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 관리
- 또한 충족해야 하는 안전기준이 79개에서 413개로 급증하였으며, 법 시행 전 원공된 공장도 유효기간이 종료된 2020년 부터는 '저압가스 배관검사' 등 새로운 규제가 적용
- 화관법이 규정한 취급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
- 그 외에도 해당사업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정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도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

■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령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국내 관련기업들의 부담이 가중**

- 화평법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사업장은 사용 물질의 성분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나 일부 글로벌 화학사들이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성분 공개를 거부
 - 실제 일부 글로벌 화학회사들은 화평법 시행에 따른 부담 확대로 한국에 판매하는 화학물질 중 매출 비중이 낮은 제품에 대해 이미 생산을 중단
- 6월 말까지 사전 신고를 하지 못한 국내 업체들은 대체 화학물질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등록하기 외부 기관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아야하며(최대 47종) 이를 위해 자본력, 전담인력, 오랜 시간이 필요하여 생산 차질이 불가피
- 또한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하는 상황에 있어 관련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
 -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법을 적용하는데 따른 준비가 부족하고 빠른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향후 휴,폐업 사례가 늘어나게 될 전망
 - 한편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대기업의 경우도 화관법에 따른 안전점검 시 공정 특성상 라인 전체가 중단되어야 하므로 기업의 부담 확대

■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규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에 대한 선별적 관리가 필요**

- 산업계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상황이며 오히려 향후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고객 확보를 위해 우량한 화학기업을 선별하여 정부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리스크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
- 다만 화학경기 하강 및 최저임금 등으로 이미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 화학기업들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 관련 기준 이행이 어려워 향후 영업 중단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강도 높은 리스크관리가 필요 

C26. 디스플레이 : LCD 시장을 지탱하는 LG, 삼성의 ASP 초격차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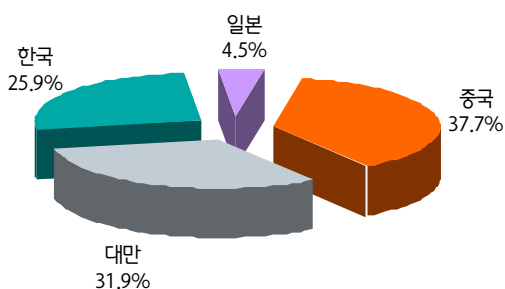
※ **Summary** : LCD 시장에서 중국은 이미 출하량 기준으로 한국을 추월했고 그 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여전히 한국이 중국과 대만을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이 저가품 위주로 박리다매 전략을 추구한데 반해 한국 기업들은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확보했기 때문. LG의 ASP는 경쟁사 대비 대형은 1.5~2.0배, 중소형은 13~20배로서 여전히 1위의 경쟁력 보유

※ **Comment** : 2019년 1분기 LCD 시장은 대형, 중소형 모두 약세로 출발했으나 4월부터 ASP가 상승 전환함에 따라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LCD 패널 출하량, 대형과 중소형 모두 중국과 대만이 한국을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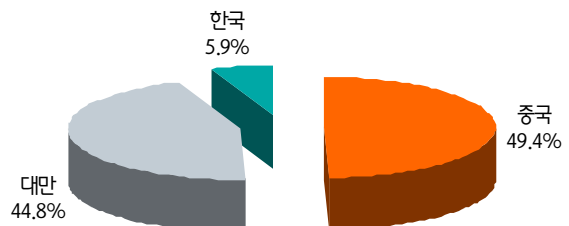
- LG, 삼성 등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LCD에 대한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고 OLED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과 대만이 한국을 추월했으며 격차는 점차 확대
 - 중소형은 과거에도 대만, 일본 등이 선두권이었고 대형은 2017년 중국이 한국을 추월
- 9.1인치 이상 대형 LCD 패널은 주로 TV, 모니터, 노트북, 대형 태블릿 등에 사용되는데 2019년 1분기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37.7%인 반면 한국은 25.9%로 3위를 차지
 - 중국과의 격차는 2017년 2.5%p에서 2019년 1분기 11.7%p로 확대
- 휴대폰, 중소형 태블릿, 자동차, 산업용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9.1인치 미만 중소형 시장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시장의 94%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5.9%에 불과
- 2019년 1분기 중소형 LCD 패널 출하량은 4억 1,103만대로서 1억 7,835만대인 대형의 2.3배를 기록했지만 금액 기준 시장 규모는 대형이 중소형의 4.7배에 달함

그림2 | 대형 LCD 패널 출하량 기준 시장점유율(19.1Q)



자료 : IH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3 | 중소형 LCD 패널 출하량 기준 시장점유율(19.1Q)



자료 : IH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금액으로 환산하면 깜짝 반전,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인한 ASP 초격차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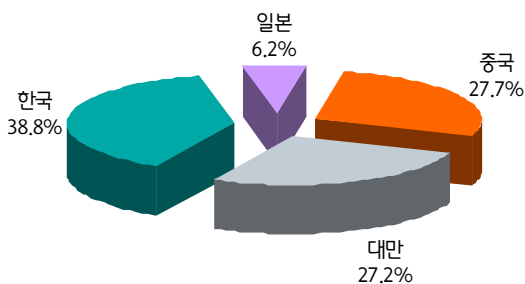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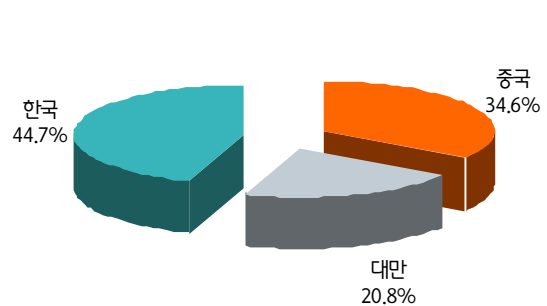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금액 기준으로 출하량과 시장점유율을 집계하는 반면 디스플레이 시장은 수량과 면적으로 출하량 및 시장점유율을 집계하는 관행이 있음
 - 반도체 수요는 Petabyte(peta는 1,000조에 해당) 수준이라 너무 커서 보통 금액으로 집계
-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언론이나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발표하는 기업별, 국가별 LCD 시장점유율도 출하량 기준인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과소평가되기도 함
 -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출하량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기업의 기술 혹은 가격 경쟁력,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위치, 수익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액 측면에서도 세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중국의 경우 박리다매 전술로 인해 시장 침투력이 빠르지만 기업의 실적은 매우 저조
- 이런 의미에서 2019년 1분기 LCD 시장점유율을 금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앞서 살펴본 출하량 기준의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확인하게 됨
- 금액 기준 2019년 1분기 대형 LCD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8.8%로서 중국의 27.7%보다 앞서 있으며 중소형 시장점유율은 44.7%로서 앞도적인 1위를 차지
 - 출하량에서 금액으로 기준 변경 시 점유율 변화: 대형 +12.8%p, 중소형 38.8%p
-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가능한 것은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국내 기업의 ASP가 월등히 높기 때문이며 한국이 여전히 LCD 1등으로 인정받는 이유
 - 대형 LCD 패널 ASP: LG디스플레이 \$115.8, AUO(대만) \$79.8, BOE(중국) \$58.9
 - 중소형 LCD 패널 ASP: LG디스플레이 \$54.7, 이노룩스(대만) \$4.0, BOE(중국) \$2.7 

그림4 | 대형 LCD 패널 금액 기준 시장점유율(19.1Q)



자료 : IH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5 | 중소형 LCD 패널 금액 기준 시장점유율(19.1Q)



자료 : IH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C30. 자동차 : 국내 중고 화물차 시장의 동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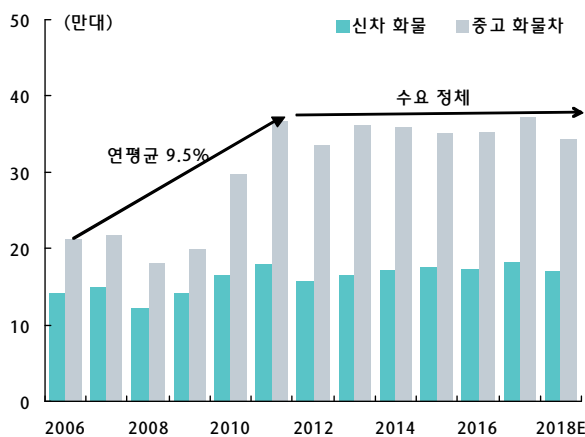
※ **Summary** : 국내 중고 화물차 시장은 2006~2011년 동안 자영업 붐에 힘입어 1톤 미만 용달차 시장을 중심으로 고성장.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생산·투자·고용 등이 크게 둔화 혹은 악화되면서, 2012년부터 전체 수요는 정체 상태가 지속. 한편, 최근 중고차 선진화 방안 등 정부차원에서 중고차 매매관련 법과 제도 등이 정비되는 등 기존의 레몬마켓에서 피치마켓으로의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

※ **Comment** : 국내 중고 화물차 시장은 자영업 및 건설경기 침체로 시장수요 정체가 계속되겠지만, 법/제도가 정비되고, 매매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온라인 및 대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중고 화물차 시장은 2012년 이후 연간 35~40만대 정도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

- 국내 중고차 시장은 2008년 이전등록 대수가 180만대에 그쳤으나, 환경 개선과 수입차 시장 확대 등으로 2018년에는 377만대로 늘어나며 10년 새 두 배로 성장
 - 이는 2018년 국내 신차(=국산차 + 수입차) 판매대수인 181만대의 2.1배 수준
- 자동차 시장에서 화물차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중고 화물차 시장규모를 산술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매년 35~40만대 정도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
 - 2018년 신차 화물은 전체 등록대수의 4.8%인 17만대 정도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중고 화물차 시장은 2006~2011년 동안 자영업 붐에 힘입어 1톤 미만 용달차 시장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해 왔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투자·고용 등이 크게 둔화 혹은 악화되면서 2012년부터 총 수요는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2006~2011년 동안 연평균 9.5% 성장세를 보인 후 2012년부터는 총 수요 변화가 없음

그림6 | 신차 및 중고 화물차 판매 동향



주 : 자동차산업협회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추정
자료 : 국토교통부

표1 | 화물차의 차령 및 적재량별 등록 비중 (단위 : %)

차령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6년미만
	7.0	6.9	6.5	6.6	6.3	5.7
7년미만	5.2	5.5	4.9	4.2	17.9	23.4
적재량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
	81.2	8.5	5.0	1.0	0.3	-
	12톤이하	15톤이하	20톤이하	20톤초과	기타	-
	0.4	0.4	0.4	2.7	0.0	-

주 : 2018년 국내 화물차 등록대수(358만대) 기준
자료 : 자동차산업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계산

■ 중고차 시장의 매매상사와 매매종사원은 각각 5,400개, 36,000명 정도로 나타남

- 중고차 매매상사는 2001년 4,286개에서 2016년 5,430개로 늘어났고, 매매종사원도 같은 기간 29,474명에서 36,07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역별 편차가 다소 존재
 - 2016년 대구, 부산, 인천 지역 매매상사 수는 2010년 대비 약 50~7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대전은 1.4% 감소
-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은 매매상사 당 종사원 수가 평균 10명을 초과하나, 지방 지역은 3~4명 정도로 매매종사원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매매상사 당 종사원 수의 차이는 매매단지의 활성화 정도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중고차 선진화 방안 등 정부차원에서 중고차 매매관련 법과 제도 등이 정비되고 있는 추세

- 현재 용달(1톤 이하/1대 이상), 개별(5톤 미만/1대), 일반(5톤 이상/1대 이상)으로 구분했다면, 화물운송시장 업종 개편 이후 개인(1대), 일반(20대 이상)으로 이원화
- 차량 증톤 여부는 개인 업종의 경우 1.5톤 미만은 소형, 1.5톤~16톤 이하는 중형, 16톤 초과는 대형으로 나누어지고, 각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허용하는 안이 유력
 - 일반 업종은 기존처럼 16개월 이상 운행 차량에 한해 적재중량의 1.5배까지 증톤이 가능
- 그리고 정부는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2차 자동차 정책 기본 계획(2017~2021년)에서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제시
- 중고차 매매 제도 개선의 주요 전략은, ①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② 모범업체 육성 및 종사자의 자질 향상, ③ 거래 활성화 방안 모색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

표2 | 중고차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대분류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매매 전)	매매 투명성 확보(매매 중)	사후관리 강화 (매매 후)	매매업 종사자 관리	매매업 관리 및 환경 개선
소분류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실화	허위 미끼 매물 근절	성능상태 점검 책임 강화	교육 의무화	자동차 복합단지 개발
	가격 조사제도 내실화	이전 등록시 검사 의무화	CPO ¹⁾ 제도 도입	인력 관리	우수업체 인증제도 도입
	통합전산망 구축	위장 당사자 거래 근절	-	NCS 도입	규제완화/세제개선
	차령별 자동차검사 결과 제공	매매 전용 번호판 도입	-	-	공제조합 설립
	전손차 수리검사제도 강화	경매시장 활성화 및 온라인 이전 등록	-	-	-

자료 : 국토교통부

1) Certified Pre-Owned 제도(미국) : 소비자 선택에 따라 차량성능에 대해 보증하는 것을 의미

■ **중고 화물차 시장은 자영업 및 건설경기 악화로 시장 수요는 현 수준 유지 전망**

- 내수시장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경기 개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톤 이하 용달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국내 화물차 시장에서 1톤 이하 등록 비중은 81.2% 정도
- 또한 경기부양 지렛대 역할을 해온 건설투자가 올해도 3~5%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건설경기과 밀접한 중대형 화물에 대한 수요도 정체를 나타낼 전망
 - 최근 국내 건설투자는 -8.0%(18.3Q) → -5.9%(18.4Q) → -7.4%(19.1Q)로 나타남

■ **다만 법/제도가 정비되고, 매매거래가 활성화되며, 점차 온라인 및 대형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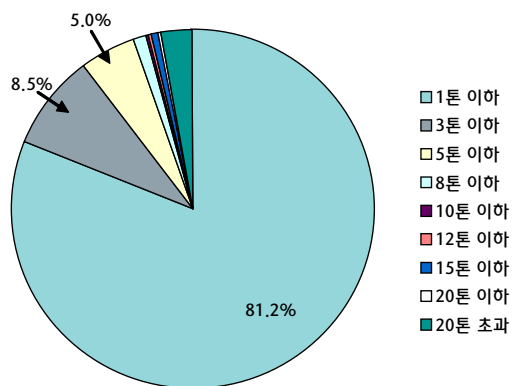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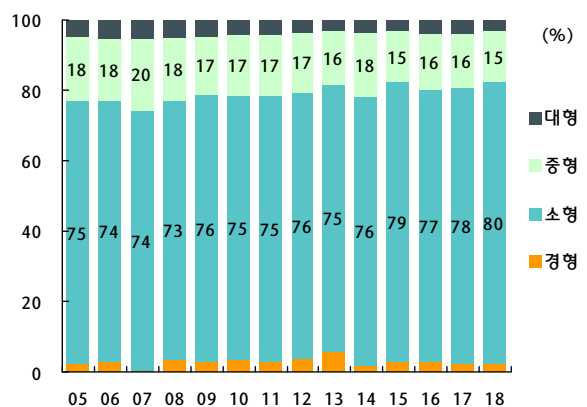
- 중고 화물차 시장은 경기둔화 및 가계부채 부담 등에 따른 가성비 중시의 소비 성향과 수입차 거래 및 중고차 인증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거래 여건이 개선될 전망
 - 2019년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위탁사인 오토플러스와 '상용 중고차 품질 인증제'를 도입
- 그동안 중고 화물차 시장은 '레몬마켓²⁾'의 대표 주자로 인식되었지만,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 방안' 등에 힘입어 '피치마켓'으로 변화하면서 점차 매매거래가 활성화될 전망
- 중고 승용차 시장과 유사하게 중고 화물차 시장도 향후 온라인과 기업화된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 

그림7 | 국내 등록된 화물차 시장의 중량별 비중



주 : 2018년 국내 화물차 등록대수(358만대) 기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그림8 | 국내 중고 화물차의 크기별 판매 비중 추이



주 1) 경형 : 배기량 1l미만으로 전장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차종
 2) 소형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차량
 3) 중형 : 최대적재량 1.5톤 초과 5톤 미만 또는 총중량 3톤 초과 10톤 미만
 4) 대형 :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자료 : 현대차, 기아차

2) 레몬마켓(반의어 : 피치마켓) : 경제학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만이 나돌아 다니게 되는 시장 상황을 말하며, 영어에서 레몬(lemon)은 속어로 '불쾌한 것', '불량품'이라는 의미가 있음 (위키피디아)

C31. 조선 :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내용과 시사점

※ **Summary** : 정부는 작년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올해 4월 말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추경안 편성을 통한 조선산업 인력양성, 금융애로 해소 및 친환경화 지원이 이번 보완대책의 주요 골자임. 정부의 이러한 추가 대책으로 중소조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역량을 갖추는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에 수혜가 집중될 전망

※ **Comment** : LNG선을 신규 수주하는 중소조선사와 LNG선 관련 기자재업체(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대양전기공업 등)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조선사 구조조정 과정 또한 모니터링 필요

■ 정부는 최근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추경안 편성을 통한 조선산업 인력양성, 금융애로 해소 및 친환경화 지원이 이번 보완대책의 주요 골자

- 정부는 2018년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조선업계의 의견과 최근의 거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난 4월 말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
 -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는 산업/고용 위기지역 연장, RG 보증규모 확대, 제작금융 지원, LNG추진선 관련 건조 역량 강화, 지점 전결권 확대, 생산인력 공급 등을 정부에 추가 요청
 - 미·중 무역 분쟁 지속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최근 선박 발주 회복세가 다소 둔화
-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 총 13개 사업에 약 692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친환경선박 전문인력 양성, 중형선박 RG 보증규모 확대, R&D 지원 등이 핵심 내용
 - 신규 사업 지원 내용 : LNG화물창 전문인력 양성(4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기술지원(26.2억원),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25억원),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R&D 지원(60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10억원)

■ 이번 정부 추가대책을 통해 중소조선사는 친환경선박 건조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의 추가대책 중 친환경선박 설계 및 생산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R&D 지원으로 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는 친환경선박 관련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올해 총 2,263명의 친환경선박 건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친환경·스마트 융합형 전문인력 253명, LNG연관선박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인력 40명, 용접·도장 등 첨단 생산 공정 전문인력 1,620명, LNG선 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350명
- 또한 중형선박에 대한 RG 보증규모 확대와 친환경선박 추가 발주 추진으로 중소 조선사의 수주 가뭄 해소와 관련 Track Record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중소조선사 대상 RG 보증규모를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LNG추진 청항선(해양 부유쓰레기 수거 전용선박) 2척을 올해 중으로 추가 발주기로 함

■ 한편 2018년 말 '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중형선박 설계지원 사업단'을 출범하였으며, 친환경선박 시장 확대를 위한 다수의 법률 개정 또한 기 추진

- 정부는 올해 3월 중소조선사 설계 지원을 위해 '중형선박 설계지원 사업단'을 출범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형 LNG선 및 LNG빙커링선 등에 대한 표준설계 개발 중
 - 출범 당시 설계인력 45명을 채용하였으며, LNG선(12K, 20K), LNG빙커링선, LPG선(5K), LPG 페리, 180m 페리 등 총 6종의 특화 선종에 대한 표준설계 개발 중(사업비 297억원)
- 또한 친환경선박 시장 확대를 위해 '친환경선박법' 및 '항만대기질 특별법'을 공포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또한 개정 추진 중
 - 2020년부터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가 의무화될 예정이며, 부산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은 배출규제지역(ECA)으로 지정되어 황함유량 규제가 0.1% 이내로 더욱 강화될 계획

■ 결국 친환경선박 관련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에 정부 대책의 수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관련 Track Record를 꾸준히 쌓아가는 업체에 주목할 필요


- 최근 일련의 정부 조선업 지원 대책과 환경규제 강화 추세를 감안하면, 친환경선박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수주를 통해 Track Record를 쌓는 업체에 수혜 전망
 - 정부는 올해 7~8척의 LNG추진선을 발주할 예정이므로 이를 수주하는 조선소 확인 필요
-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중소 조선사 중에는 STX조선해양이 LNG빙커링선을 건조한 경험이 있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LNG선 기자재 업체 중에는 보냉재를 제작하는 한국카본 및 동성화인텍, LNG선 관련 배관이음새를 생산하는 태광, LNG선 특수 조명등을 생산하는 대양전기공업 등이 전망이 밝은 업체임 

표3 |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및 보완대책

구분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금융, 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	-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연장 추진 - 대출 및 보증 만기연장(1조원) -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0.7조원) : 제작금융, 친환경보증, 중형선 RG	-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정 연장 -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2,263명) - 제작금융 대상 및 지점 전결권 확대 - 중형선박 RG 보증 1천억원 확대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창출	- 배출규제해역(ECA) 시행(2021년 1월) -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140척) - 수소, 전기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선 도입 - LNG 빙커링 인프라 구축(2조 8천억원 투자)	- 중소조선사 LNG추진선 건조역량 강화 지원 (기술개발-기술지원-보급 등) - 국내 최초 직류기반 전기추진선 건조 : 기자재 실증선 활용
중소 조선사/기자재 경쟁력 제고	- (기술) 자율운항선박 개발 - (설계) 중소조선사 설계 역량 강화 - (건조) 스마트 K-야드 추진 - (영업) 해외 거점 구축 등을 통한 지원	- 위기극복 및 혁신성장 R&D 지원 - 레저선박, 알루미늄 선박 등 기반 구축 지원 - 연내 '조선산업 미래 로드맵' 마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D. 발전 : 국내 풍력발전 최근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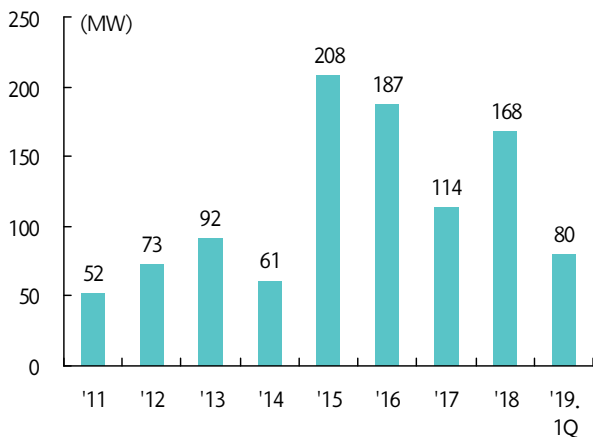
※ **Summary** : 정부가 2017년 하반기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수용성 문제, 더딘 인허가, 환경훼손 등 사업추진여건 개선이 미미하여 연간 풍력발전 설치량은 200MW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음. 주요 발전사 등에서는 입지제약 타개를 위해 육상보다 해상풍력 발전에 집중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새만금, 완도 등의 지역에 9.4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Comment** : 세계적으로 규모의 경제 및 기술의 발전으로 해상풍력의 가격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국내는 해상 설치경험이 미미하여 사업위험이 높은 편으로 각종 개발 및 운영 리스크에 주의

■ 국내 풍력발전 연간 설치량은 200MW 내외로 태양광에 비해 더딘 성장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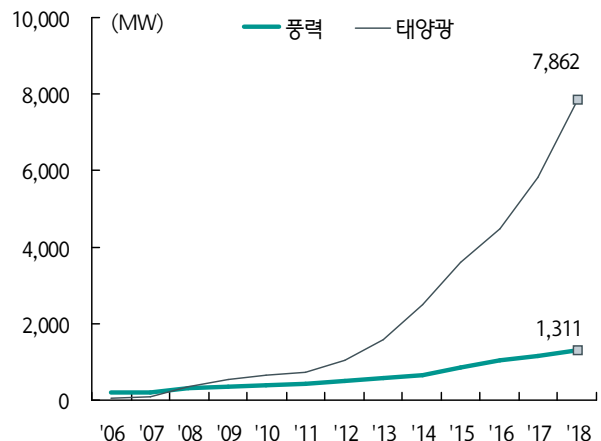
- 육상풍력 환경규제 완화(2014년 하반기)로 2015년 국내 역대 최고 수준인 208MW의 풍력발전이 설치되었으나 주민 민원 등으로 2016년 다시 규제를 강화하며 시장 위축
- 정부가 2017년 하반기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수용성 문제, 인허가 등 사업 장애요인이 여전하여 2018년 설치량은 168MW에 불과
- 2018년 국내 태양광발전 설치량이 2,027MW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과 대조되어 주력 재생에너지원 사이의 온도차이 큰 편
 - 2018년 기준 누적 풍력발전 설치량은 1.3GW로 태양광(7.9GW)과 약 6배의 격차가 존재하며, 국내 20MW 이상 대형 풍력발전소는 총 25곳 밖에 되지 않음
- 2019년 1분기 국내 풍력발전 설치량은 80MW로 전년동기 70MW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615MW가 설치된 태양광과 격차 여전

그림9 | 국내 연간 신규 풍력발전 설치동향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그림10 | 국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누적 설치량 비교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을 위해 2018~2030년 풍력 보급목표를 16.5GW로 설정한 바 있으며 주요 발전사 등에서는 입지제약 타개를 위해 육상보다 해상풍력에 비중을 두고 있음
 - 정부는 2017년 1.2GW인 풍력 용량을 2030년 17.7GW로 확대하겠다고 발표(RE 3020)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1~1.5GW씩 풍력발전이 늘어나야 하나 입지갈등, 환경훼손, 인허가 등 주요 이슈 해결이 쉽지 않아 추진 속도 더딘 편
 - 대형 발전사들은 개발가능부지가 제한적이고 주민 수용성이 낮은 육상보다 해상풍력에 중점
 - RPS 공급의무자 및 공공기관 등 17개사는 2026년까지 총 24.2GW의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 육상풍력 1.8GW, 해상풍력 9.4GW를 차지
 - 새만금해상풍력(1GW), 완도 육·해상풍력(1.3GW), 서남해해상풍력(2.4GW) 등이 주요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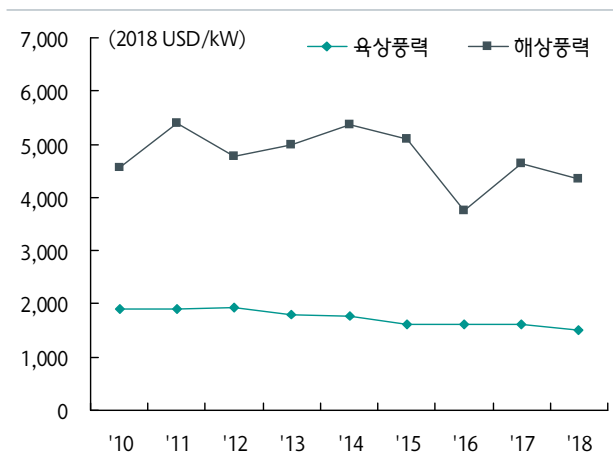
- 세계적으로 규모의 경제 및 기술발전 등으로 해상풍력의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국내는 설치경험이 미미하여 사업위험이 높은 편으로 개발 및 운영단계의 각종 리스크에 주의
 - 해상풍력은 부지관련 제약이 낮고 전력 생산 효율이 우수하여 수백MW급 대규모 발전단지 구축에 적합하지만, 육상보다 투자 및 운영비용이 비싸 발전단가가 높은 편
 - 해상풍력은 터빈 등 주요 부품 제조, 개발 및 운영, 해상설치 등 가치사슬 전반적으로 경험 축적에 따른 신뢰 확보가 중요한 분야로 소수의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 중
 - 국내는 그간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일감 확보가 불안정성하여 충분한 육·해상 트랙 레코드를 쌓지 못했으며, 해상풍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도 부족
 - 해상풍력은 육상보다 통제변수가 많기 때문에 개발업체의 풍부한 사업경험이 가장 중요하며, 준공 및 건설비용, 기술, 풍향 자원, 운영전략 등 각종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

표4 | 국내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계획

구분		용량(MW)	프로젝트(개)	사업비(조원)
태양광	육상	8,524	45	13.7
	수상	4,429	34	10.2
	소계	12,953	79	23.9
풍력	육상	1,814	36	5.3
	해상	9,435	27	48.5
	소계	11,249	63	53.8
합계		24,202	142	77.8

주 : RPS 공급의무자 및 공공기관 등 17개사 합산 계획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그림11 |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설치비용 비교



주 : 글로벌 가중평균 기준
 자료 : IRENA

G. 종합유통 : 신생 중소 면세점 부진에도 하반기 시내면세점 추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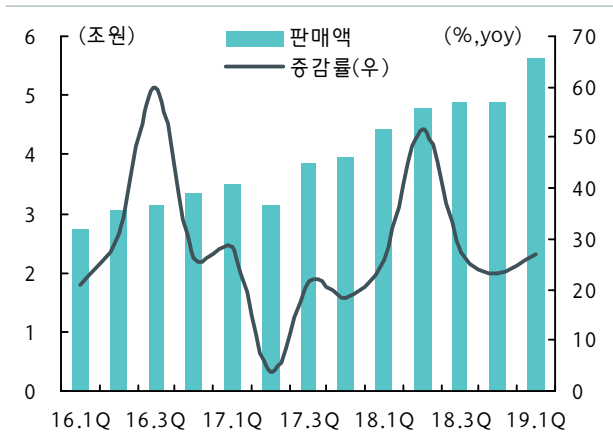
※ **Summary** : 다이공 매출로 전체 면세점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생 중소면세점 중 하나인 한화 그룹 면세점은 실적 부진으로 조기 철수를 결정. 중국 단체 관광객 제한과 업체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가 실적 부진의 원인. 중소 면세점들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11월에도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6곳과 인천공항 1터미널 사업자 재선정을 계획하고 있음

※ **Comment** : 신규 사업자 추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중소 면세점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 증가와 매출 성장 제한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시장 성장 속에서 부진한 실적을 이어오던 한화 그룹 면세점의 조기 철수 결정

- 다이공 매출에 의한 면세점 시장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로 중소 면세점들의 실적은 부진한 가운데, 한화 그룹이 '갤러리아면세점63'의 조기 철수를 결정
 - 국내 면세점 판매액은 2019년 1분기 5.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0% 성장
 - 원래 한화 그룹의 사업 종료 예정 기간은 내년 말이지만 올해 9월에 철수하기로 결정
- 한화 그룹은 2014년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득하며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15년에는 서울의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신규 선정되면서 사업 확장
- 하지만, 사드 사태에 이은 중국 관광객 제한 및 업체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부진한 실적이 지속되면서 2017년 공항 면세점 영업 종료에 이어 시내면세점도 철수
 - 지난 3년 간 갤러리아면세점63의 누적 영업 손실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2015년 선정 당시 5개였던 서울 시내면세점은 현재 13개로 2배 이상 증가

그림12 | 국내 면세점 판매액 추이



자료 : 통계청

표5 | 갤러리아면세점63 현황

구분	내용
선정	2015년 12월
정식 개장	2016년 7월
위치	서울 여의도 63빌딩(4개층)
영업면적	1만 72 m ²
재무 실적	3년간 약 1,000억원 누적 적자
실적 부진 사유	중국 단체 관광객 제한, 경쟁 신규 면세점 증가, 해외 소비자 도객에 불리한 입지 등
공식적인 폐점 사유	이익구조 전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백화점사업 강화와 신규 사업 추진에 집중

자료 : 한화, 언론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정부는 올해에도 신규 시내면세점 및 공항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경쟁 강도 심화 예상

- 갤러리아면세점을 비롯한 중소면세점들의 부진 속에서도 기획재정부는 2019년 11월에 총 6곳의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결정
 - 신규 특허 : 대기업 5곳(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중소중견기업 1곳(충남)
 - 신규 시내면세점 선정은 5월 중 입찰 공고 후 11월에 사업자 선정 완료 예정
- 파이공 및 단체관광객 등을 모객하기 위한 수수료 및 할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신규면세점의 추가는 경쟁 과열을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도 같은 기간에 시행될 예정으로 입찰 결과에 따라 시장 경쟁 구도의 불확실성 존재
 - 공항 사업장 반납으로 사업면적이 축소되었던 롯데를 중심으로 입찰 경쟁 예상

■ 중소 면세점 업체들의 실적 부진 상황에서 경쟁 심화에 따른 수수료 부담 증가 및 매출 성장 제한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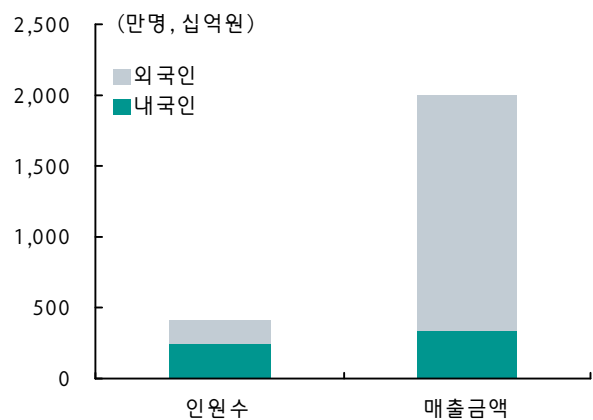
- 면세점은 해외 소비자들이 주 고객으로 글로벌 마케팅 비용 및 송객 수수료 부담이 높은 업종으로 경쟁 심화는 자금 규모가 작은 중소 업체들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
 - 2019년 4월 외국인 매출액은 총 1.7조원으로 전체 83.1% 차지
- 또한 신규 면세점 추가는 중소 면세점들의 매출 성장을 제한하여 유명 브랜드 유치와 매입 단가 하락을 위한 규모의 경제 달성을 어렵게 함
- 한화 면세점뿐만 아니라 SM, 시티, 에타스 등의 중소 면세점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면세점 추가에 따른 업체들 실적 악화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유**

표6 | 2019년 신규 시내면세점 및 공항면세점 재선정

시내면세점 신규	
기업규모 구분	지역
대기업	서울 3곳
	인천 1곳
	광주 1곳
중소중견기업	충남 1곳
인천 공항 T1 재선정	
품목 구분	구역
향수 화장품	DF2
주류, 담배	DF3, 4, 12
부티크, 잡화	DF6, 7
전품목	DF9, 10

자료 : 언론자료, 하나금융투자

그림13 | 면세점 소비자 국적별 인원수 및 매출액



자료 : 각 사, 언론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L. 부동산 및 임대 : (주)직방 국내 PropTech 최초 유니콘 기업으로 기대

※ **Summary** : (주)직방을 필두로 PropTech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주)직방은 최근 Series D 자금(1,200억원) 유치에 성공, 국내 PropTech 최초로 유니콘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됨. 현재 부동산 스타트업 기업은 주택 중심에서 개발부지 분석, 상업용 부동산 등 다양화되고 있으며 벤처 투자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유사한 PropTech 기업에 대한 발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Comment** : 단, PropTech기업의 수익구조는 여전히 불안정적이며 경쟁이 치열하고 제공되는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 또는 여신을 취급할 필요가 있음

■ 모바일 PropTech 선두주자 '직방' 유니콘 후보로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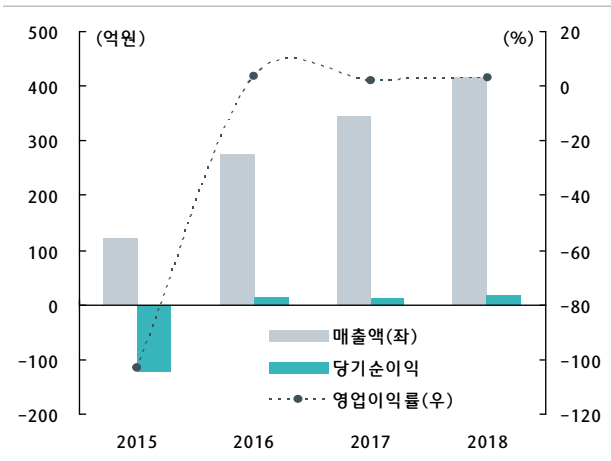
- (주)직방이 최근 1,200억원대 Series D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면서 국내 PropTech 최초로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음
 - 벤처기업의 투자는 통상 3단계(Series A~C)로 구분되는데 Series C 이후로는 대규모 수익창출을 위한 투자단계로 IPO(기업공개)를 목전에 둔 상황으로 인식됨
 - ※ 유니콘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
- (주)직방은 2015년 이후 사세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으며 호갱노노(아파트 중개), 스페이스워크(부동산 개발 데이터 분석), 디스코(상가 데이터 분석) 등을 인수하여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주)직방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3년 연속 흑자성과를 실현하는 등 향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자본시장에서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표7 | (주)직방 개요

구분	주요내용
회사명	(주)직방 (2015년 사명변경)
설립일시	2010년 (채널브리즈(주))
업출시	2012년 2018년 현재 다운로드 2,500만건 달성
자회사	호갱노노(부동산 중개앱), 큐픽스(인테리어), 셰어하우스우주(셰어하우스), 스페이스워크(데이터분석), 디스코(데이터분석),
유관기관 (업무협약)	한국감정원, 피데스개발, 다음부동산(위탁운영), 코람코신탁, 우리은행

자료 : (주)직방

그림14 | 직방 경영실적



자료 : The Bell

■ **공공데이터 오픈과 벤처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되면서 유사한 PropTech 기업 등장 기대**

- (주)직방은 2011년 최초 투자를 유치한 이래 6차례에 걸쳐 1,86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국내 투자자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투자자금을 유치
 - 특히 미국 벤처캐피탈사인 골드만삭스피어는 380억원의 Series C 전액을 단독 투자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
- 국내 벤처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직방에 대한 관심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유사한 PropTech 기업의 발굴도 이어질 전망
 - 2018년 기준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3.4조원이며 투자대상 회사는 1,400여개사에 달함
- 대부분 직방과 유사한 주택 O2O 스타트업이나 부동산 관련 공공데이터 오픈에 힘입어 부동산 가치평가(랜드북), 상업용부동산(벨류맵) 등 다양화될 전망

■ **단, 경쟁심화와 불안정한 수익구조에 대한 해소여부가 향후 발전의 키워드가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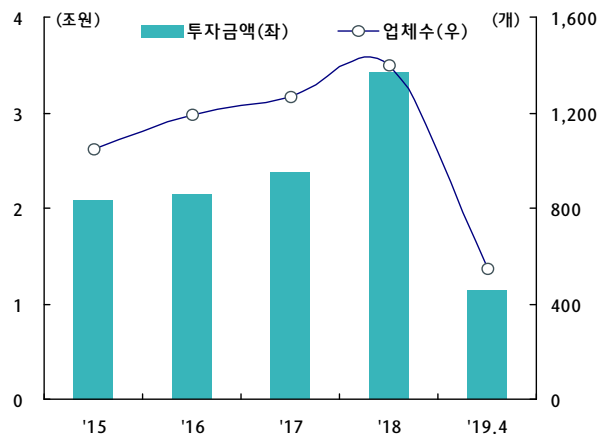
- PropTech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중개물건 등록비(광고료)를 수익원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위축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함
- 또한, 부동산 중개관련 기업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며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대부분 공공데이터의 재가공에 불과해 ProTech 기업이 제공하는 부가가치는 상당히 제한적임
 - 직방이 부각되고는 있으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서비스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평가됨
- 주택 이외의 PropTech은 기업 고객의 유치가 관건이나 개별 부동산에 대한 조사·평가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기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스타트업이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표8 | 직방 투자 유치 실적

일시	Class	투자금액	투자자
'11.8	pre-A	15억원	포스코기술투자 에스엘인베스트먼트 블루런벤처스
'14.6	Series A	30억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스톤브릿지벤처스
'14.8	Series A	30억원	알토스벤처스
'15.3	Series B	210억원	에이티알인베스트먼트 포스코 기술투자 엘비인베스트먼트 외 4개사
'15.12	Series C	380억원	골드만삭스피어
'19.6	Series D	1,200억원	알토스벤처스 디에스자산운용 골드만삭스 피아 외 다수

자료 : (주)직방, THE VC

그림15 |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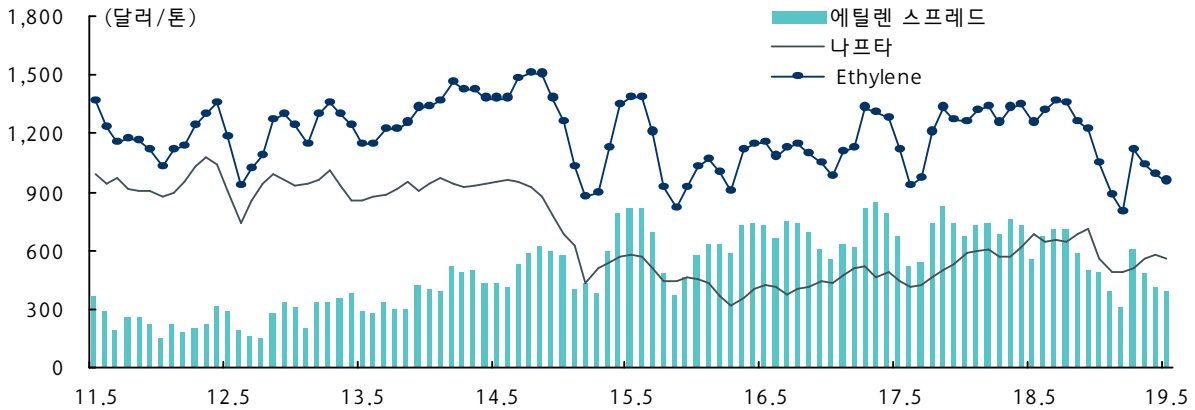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업별 주요 지표

화학제품(C20-21)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16 | 에틸렌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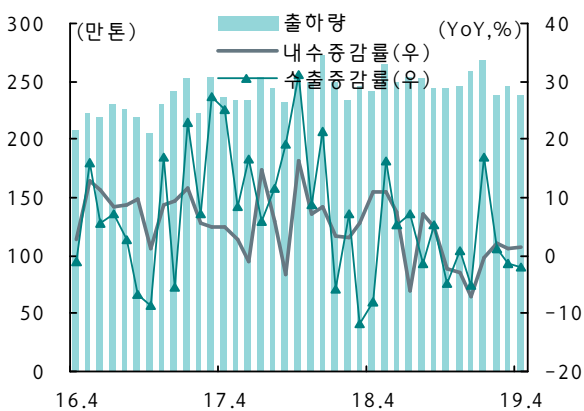


자료: Cischem

■ 유가 약세에 따른 나프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에틸렌 수요 둔화로 스프레드는 축소

- 미중 무역갈등 지속, OPEC 의 감산 불확실성 확대로 5월 말부터 유가가 다시 배럴 당 60달러 수준으로 급락. 나프타 가격도 동반하락했으나 에틸렌 가격이 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5월 스프레드는 380달러 내외를 기록
- 글로벌 경기 부진이 지속되나 중국의 내수 부양에 따른 석유화학 수요는 증가세에 있어 제품 가격은 다시 오름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그림17 | 석유화학제품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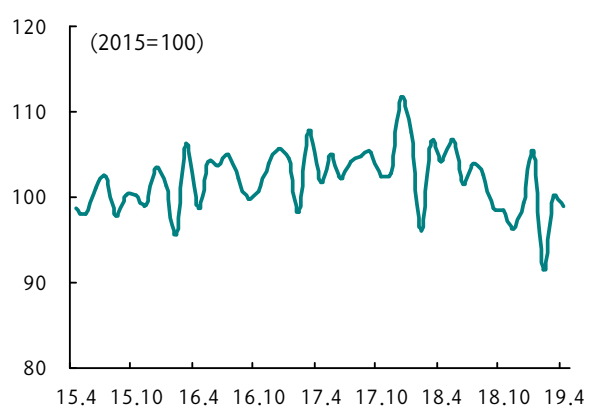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내수, 수출 부진은 지속 중

- 국내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회복 지연으로 내수는 전년동기비 1%내외 증가에 그침
- 수출은 대외환경 불안으로 전년동기비 2% 감소

그림18 | 석유화학제품 가동률지수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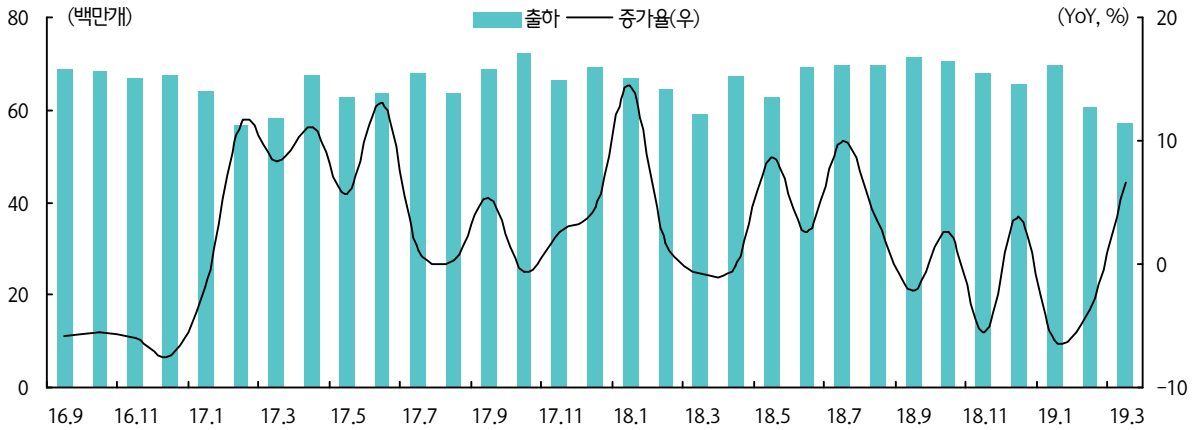
■ 국내 수급개선 지연으로 가동률 지수 정체

- 내수, 수출 부진 지속으로 석유 화학 가동률 지수는 98 (2015=100)로 정체

디스플레이(C26)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	----	----	----	----	----

그림19 | 전 세계 대형 LCD패널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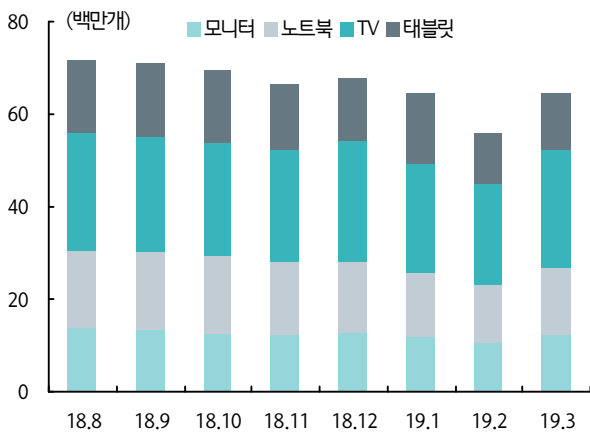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 2018년 전 세계 대형 LCD 출하 3.0% 증가, 2019년 1분기는 마이너스로 출발

- 2018년 대형 LCD 패널 출하는 전년동기비 3.0% 증가했으며 2018년 하반기 출하는 전년동기비 1.9% 증가
- 2019년 1분기 대형 LCD 패널 출하는 전년동기비 0.9% 감소하며 약세로 출발. 3월은 6.5% 깜짝 성장
- 2019년 1분기 중 소형 LCD 패널 출하는 휴대폰 시장의 부진을 반영해 전년동기비 22.2% 감소

그림20 | 기종별 대형 LCD 패널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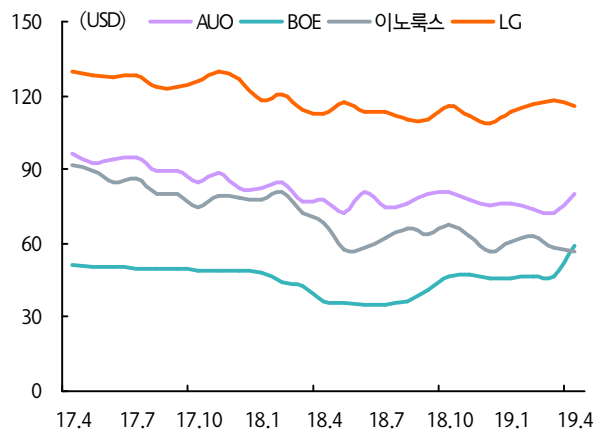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 1분기 LCD 출하량 TV만 플러스 성장

- 모니터용 패널: 전년동기비 -0.7%
- 노트북용 패널: 전년동기비 -4.3%
- TV용 패널: 전년동기비 +4.3%
- 태블릿용 패널: 전년동기비 -5.5%

그림21 | 기업별 대형 LCD 패널 ASP 비교



자료: IHS

■ LG, 대형 LCD ASP 경쟁사의 1.5~2.0배

- LG의 대형 패널 ASP 대만 AUO의 1.5배
- LG의 대형 패널 ASP 중국 BOE의 2.0배
- LG의 대형 패널 ASP 대만 이노룩스의 2.0배
- 4월 ASP 변동(MoM): 대형 +3.0%, 중 소형 8.4%

자동차(C3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22 | 국내 완성차 수출단가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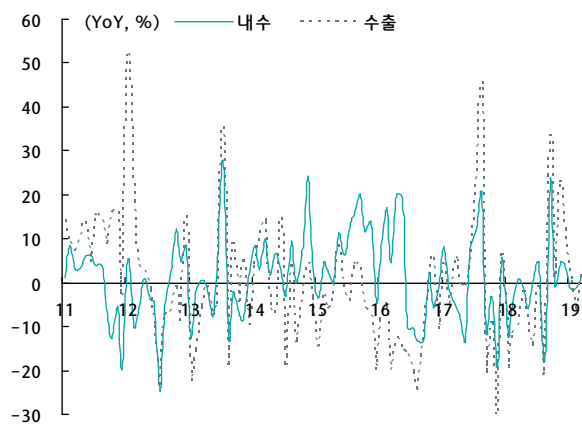


자료: KAM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4월 수출 단가는 친환경차와 SUV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상승

- 4월 수출 단가는 대당 1만 5,520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SUV 수요 증가 속에 현대/기아차의 SUV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하며, 완성차 수출 단가 상승을 견인

그림23 | 국내 내수/수출 판매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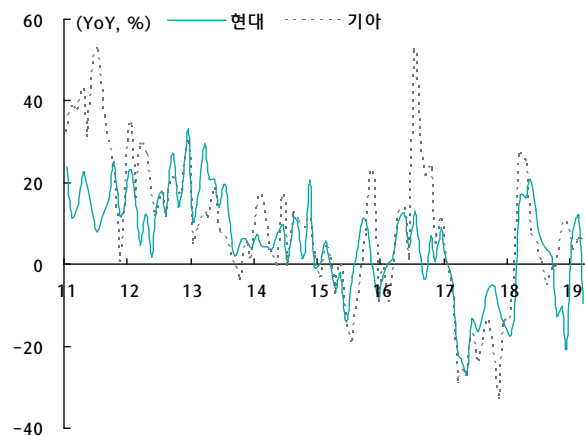


자료: KAMA

■ 4월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

- '19년 4월 내수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 효과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5%를 나타냄
- '19년 4월 수출은 현대/기아차의 SUV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7%를 나타냄

그림24 | 현대/기아차 해외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K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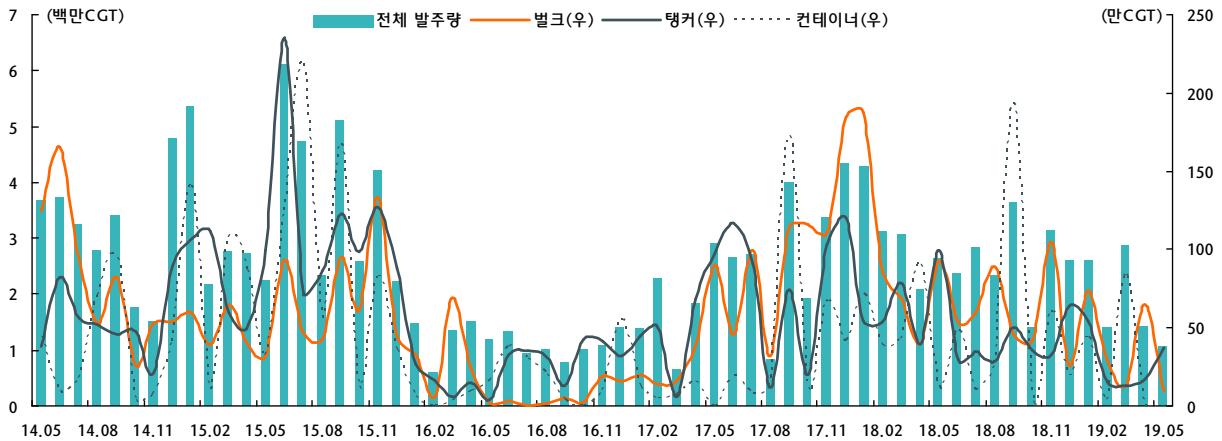
■ 4월 해외생산 부진은 지속

- '19년 4월 현대/기아 해외생산은 32만 여대로 전월대비 -11.7%, 전년동월대비 -5.2%로 나타남
- '17년 4월 대비로는 +13.5%를 기록하며, 전전년동기비로는 '17년 8월 이후 20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을 나타냄

조선(C31) Industry Cycle

둔화(주위) **침체** 회복 안정 할향 둔화

그림25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선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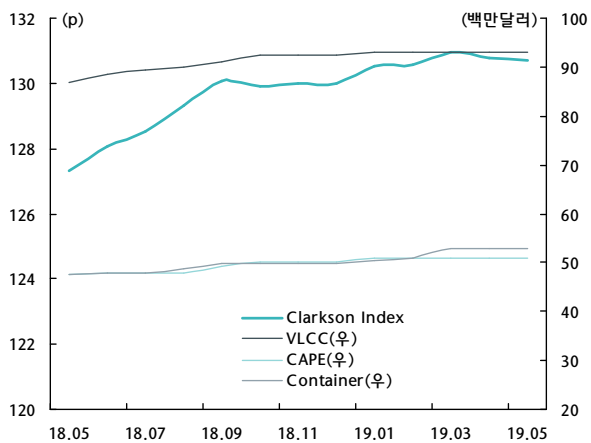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5월 전 세계 상선 발주는 컨테이너선 발주가 침체된 반면 LNG선 및 탱커선 발주가 증가

- 5월 전 세계 상선 발주량은 전월대비 25.9% 감소한 약 1.1백만CGT를 기록하였으며, 컨테이너선 발주가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전무한 가운데 탱커선과 LNG선 발주는 전월대비 증가
- 5월 선종별 발주량 증가(전월대비) : 벌크선 -85.3%, 탱커선 +113.0%, LNG선 +23.1%, 컨테이너선 0%

그림26 | Clarkson 신조선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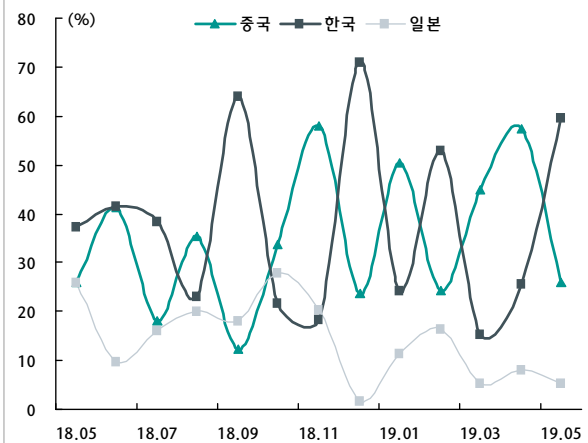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5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31p로 보합

- 5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31p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1월 이후 5개월 연속 보합세
- 주요 선종별 신조선가: Cape선 \$51M, VLCC \$93M, 4,800TEU 컨선 \$53M, 174K CBM LNG선 \$185.5M

그림27 | 국가별 상선 수주점유율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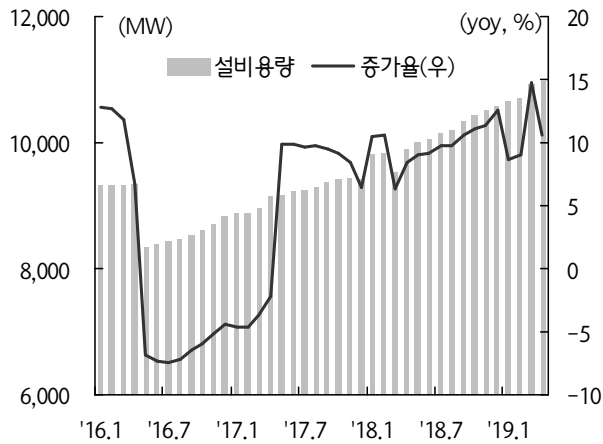
■ 5월 국가별 수주점유율은 한국이 1위 차지

- 5월 국가별 수주점유율은 한국이 LNG선 4척을 수주한데 힘입어 1위를 차지(수주점유율 60%) (중국과 일본 M/S는 각각 26%와 5%에 불과)
- LNG선 4척은 현종 2척, 대우조선과 삼성중 각 1척 수주

에너지(D)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28 |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전력거래소 등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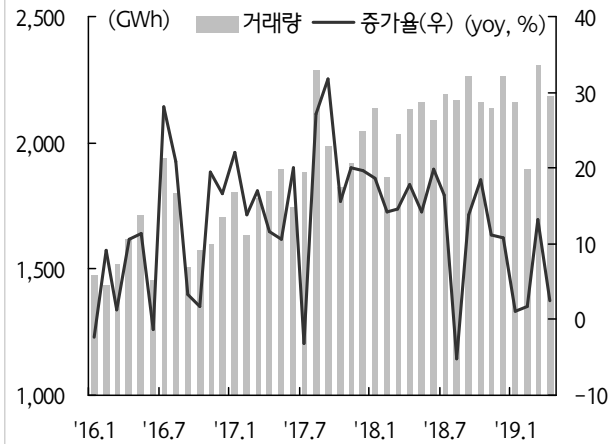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 '19년 4월 신재생 설비용량 10,971MW

- 전월대비 태양광 34.2MW, 바이오에너지 1.3MW 증가
-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10.7% 상승

그림29 |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전력거래소 등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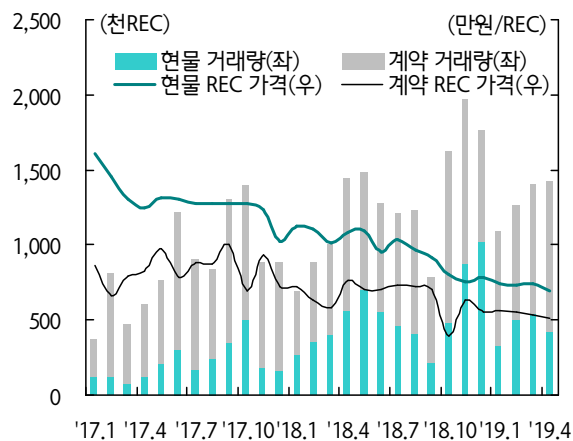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 '19년 4월 신재생 전력거래량 2,186GWh

- 2019년 4월 전력거래량 전월대비 5.2% 감소, 전년동월대비 2.6% 상승

그림30 | 평균 REC 거래가격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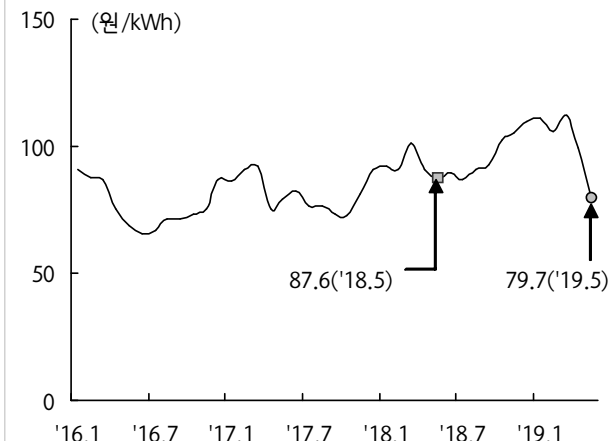
주 : 거래량 및 금액으로부터 계산한 평균 REC 거래가격으로 실제 계약가격 및 현물가격과 차이 존재

자료: 전력거래소

■ '19년 4월 계약REC 5.1만원, 현물REC 6.9만원

- (거래량) 현물 42.2만 REC로 전월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계약 100만 REC로 늘어나며 전체 거래량은 전월수준 유지
- (가격) 현물 및 계약 REC 가격 전월대비 소폭 하락

그림31 | SMP 동향



자료: 전력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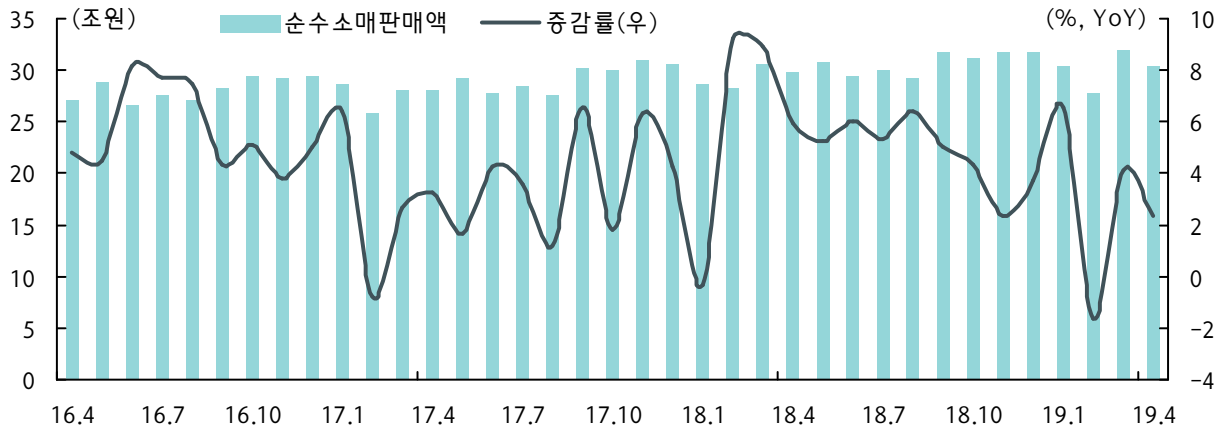
■ '19년 5월 SMP 79.65원/kWh 기록

-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LNG 열량당가 하락, 전력 수요 감소 등으로 2019년 5월 SMP 전년동월대비 9.1% 하락

유통(G)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32 | 순수소매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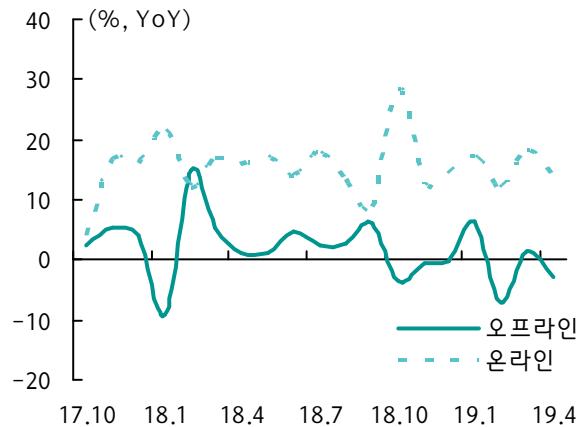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2019년 4월, 소매판매액 성장률이 둔화되며 전년동월대비 2.3% 성장

- 전년동월대비 순수소매판매액(자동차 및 연료 판매액 제외) 증감률은 3월에 4.1% 증가하며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4월에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다시 둔화되면서 2.3% 증가에 그침

그림33 | 주요 오프라인 업체들의 매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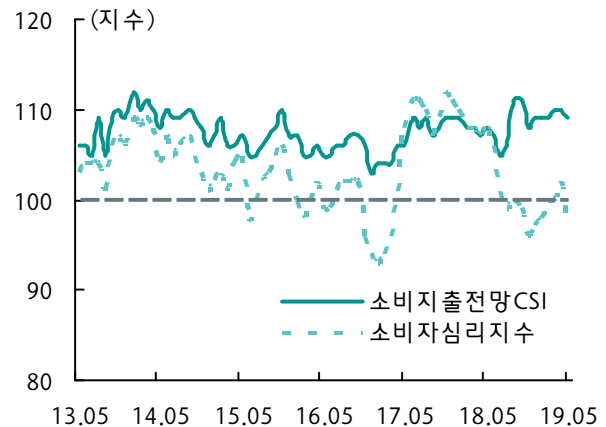


주: 오프라인-편의점(3사), SSM(4사),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온라인-온라인판매중개(4사), 온라인판매(9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4월, 오프라인 감소세 전환

- 오프라인 주요 업체 판매액은 온라인으로의 고객 이탈과 의류 판매 부진으로 4월에는 2.9%(YoY) 감소
- 온라인 주요 업체 판매액은 5월 가정의 달 상품이 호조를 보이면서 18.2%(YoY) 성장

그림34 | 소비 심리 지수, 소비 지출 전망



자료: 통계청

■ 2019년 5월, 소비자심리지수 100 하회

- 2019년 4월 102로 기준점(100)을 상회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5월에는 98로 하락하면서 국내외 경기 불안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을 반영
- 소비지출전망CSI는 전월 대비 1p 감소한 109 기록

부동산 및 임대업(L)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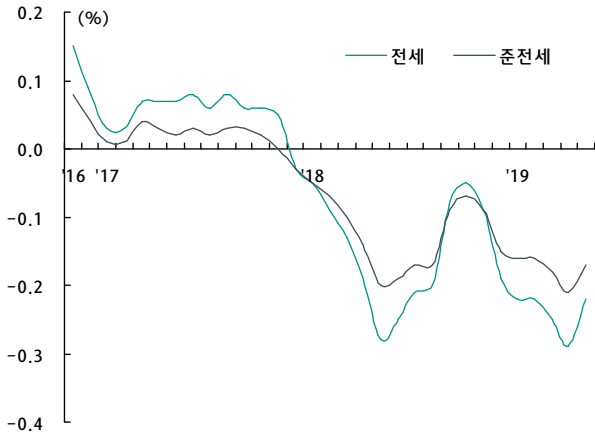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35 | 전국 주택 전세 및 준전세 가격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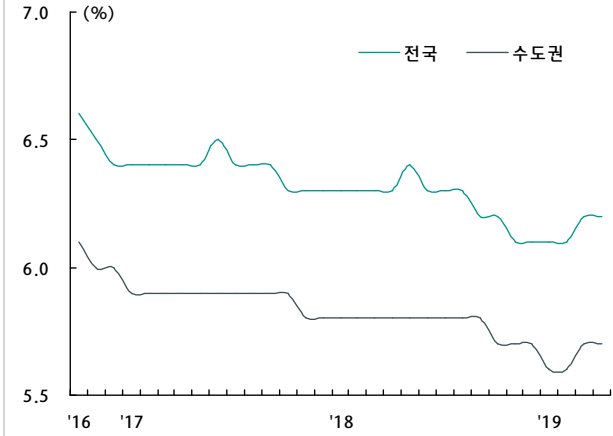


자료: 한국감정원

■ 전세가격 하락세 지속되나 하락폭 감소

- 수도권 전세가격 하락세 주도했던 서울 동남권 전세가격 하락폭 전월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송파구는 2개월 연속 전세가격 상승해 공급 증가의 충격에서 상당부분 벗어난 것으로 판단

그림36 | 주택 전월세 전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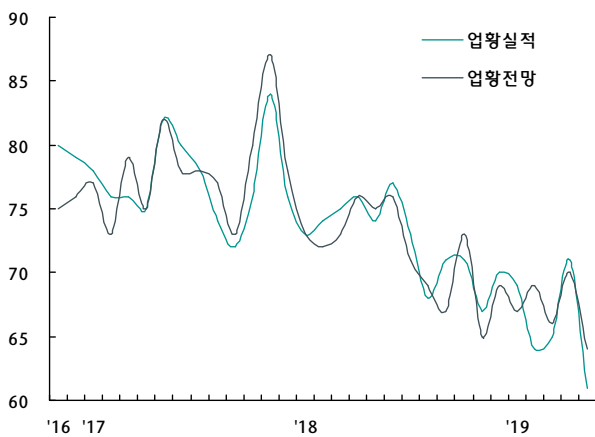


자료 : 한국감정원

■ 금리 안정화되면서 전월세 전환율도 안정

-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금리하락 가능성 확대로 금리 하향안정화되면서 전월세 전환율도 다시 안정세
- 주택 공급과잉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전월세 전환율은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37 | 기업경기 실사지수(부동산 임대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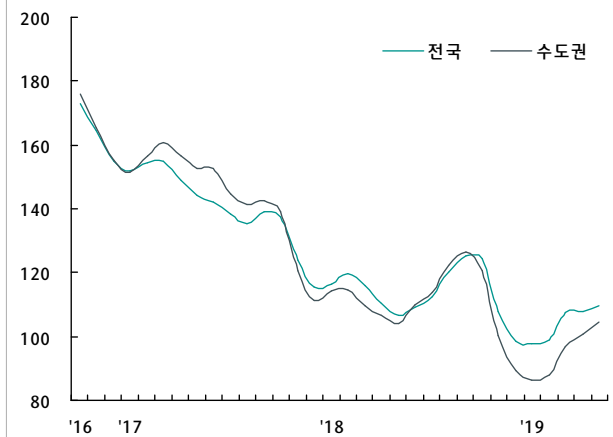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공시가격 상승 겹치면서 실적 및 전망 동반 급락

-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5월 들어 급락했으며 현 수준은 시장침체기인 '12~'13년 수준
- 자영업 침체에 따른 임대 수익 저하에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겹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됨

그림38 | 주택 전세 수급지수



자료: KB부동산

■ 전세가격 당분간 보합세 이어질 전망

- 전세 수급지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 임차시장이 공급충격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음
- 단, 여전히 균형점(100) 인근을 유지하고 있어 전세가격은 당분간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하나 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TEL 02-2002-2200
FAX 02-2002-2610
<http://www.hanafn.com>